

호남 경선 앞두고 전남 여성들 ‘명낙 대리전’

민주당 지역 여성당원 2천500여명 이낙연 지지 선언에
교수·변호사·주부 등 1만여명 “이재명이 적임자” 맞불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대리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광주·전남)과 26일(전북) 순회경선을 치르는 호남 선거인단은 약 20만명으로, 충청권

(7만6천명)의 3배에 달한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기선 제압을 위한 양 후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 앞에서 전남지역 여성들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전남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지방의원, 가정주부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 유권자들은 “지역 출신 후보와의 연고, 그를 지지하는 이웃들의 정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전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이를 담대하게 실천할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사회활동을 통해 그리고 공직자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청년배당, 무상교육, 산후조리 지원, 지역화폐, 청년·농민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정책이 빛을 본 것은 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가사와 돌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일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는 나라,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적임자는 이 지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들이 전남도의회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여성당원 2천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여성당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깊어지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 격화되는 국제 경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검증된 역량과 실력, 올바른 인품과 도덕성, 안정감과 노련미를 모두 갖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삶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이 전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 대표로서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섭렵해 왔고 어떤 위치에서든 실력과 역량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인품을 치열하고 혹독하게 검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흑산 홍어잡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250년 역사성·혼획 없고 환경오염 최소화 인정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9일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해양수산부 공모 심사(발표·현장)를 최종 통과해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은 이번엔 지정된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포함해 보성 뽕배어업(2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4호),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5호), 무안·신안 갯벌 낚지 맨손어업(6호), 광양 하동 재첩잡이 손틀어업(7호) 등으로 전국 국가중요어업유산 11개 중 6개 어업 유산을 지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흑산도 일대 연근해 어장에서 행해지는 전통 어

법이다.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홍어를 잡는 낚시어구(주낙)로 미끼를 끼우지 않고 미늘이 없는 낚싯바늘(검낙)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늘은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홍어를 임금님께 올린 진상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흑산 홍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이 김약행의 ‘유대흥기’(1770년)임을 감안해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이 최소 25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진 전통어업기술로 인정받았다.
특히 국외 홍어 생산지인 미국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그물을 해저에서 끌어 고기를 잡는 방식인 트롤(Trawl) 조업으로 홍어 외에 다른 품종까지 혼획이 이뤄지는데 반해, 흑산도 ‘주낙’ 방식은 혼획이 없고 미끼를 사용하지 않아 해양 오염도 최소화하는 등 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인정됐다.
한때 신안 흑산에서는 어족자원 감소로 홍어잡이 배가 사라질 위기까지 직면했지만 그동안 총허용 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를 통해 자원을 관리한 결과, 2016년 6척, 248에 불과한 어획 할당량이 2021년 16척, 583t 규모로 2배 이상 늘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환경 개선을 위한 홍어 위관장 현대화사업과 상징조형물 설치, 전통자료 복원, 연계 상품개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전남 어촌의 독창적 유·무형 자산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메타버스 가상현실 체험 9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개막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에이스페어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란 주제로 12일까지 계속된다. /김애리 기자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2차 추경안 6천232억원 의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6천23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회계 6천148억원, 특별회계 84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지원에 대부분 쓰인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천66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13억원, 긴급

복지지원비 247억원, 생활지원비 177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코로나19 집중센터 인건비 지원 51억원, 집중센터 운영비 지원 14억원, 격리·입원 치료비 10억원, 의료진 수당 12억원 등도 원안 의결됐다.
청년드림은행 운영 32억원, 노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50억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3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청

사 쉽터 조성 100억원, 광주 송정역 관문형 폴리 프로젝트 711억원은 ‘소모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됐다.
교통 수요 감소를 들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비는 2천601억원을 삭감해 2조5천억원만 편성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선 예산인 도로 개설·확충에 26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추경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종행기자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15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2년 이상(타 시·도

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증가 규모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증가 인원 5명) 이

상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사업장 소재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 또는 소재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온가족 수목 애니메이션 감상하세요”

내일부터 3주간 으뜸전남티브 ‘수목 토요 시네마’ 상영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9일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1일 오후 7시 전남도 공식 유튜브인 ‘으뜸전남티브’에서 ‘수목 토요 시네마’를 첫 상영한다”고 밝혔다.
‘수목 토요 시네마’는 수목이 녹아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구성됐다. 수목 영화의 가능성을 알리고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비엔날레 대표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는 국내 독립 애

니메이션으로 수목 내용이 담긴 10개 영화를 엄선해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방영한다.
주요 상영 영화는 가족 간 사랑이 담긴 ‘수달 이야기’, 삶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물고기’, 꿈을 이루고자 성실히 노력하는 ‘안개너머 하얀개’, ‘윤희’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온라인 미술관과 영상관 등을 구축해 ‘오디오 가이드’, ‘수목 웹드라마’, ‘온라인 보물찾기’, ‘수목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영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이번 수목 토요 시네마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수목 애니메이션 영화이므로 수목의 대중화와 국제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신제품 개발 와이앤바이오, PLS에 대응할 수 있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회복토 입제’, 병해관리용 ‘무름엔’ 출시!

시설하우스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토양개량제가 출시되었다.
(주)와이앤바이오(대표 장영규)는 농촌진흥청과 중국 청도농업대학이 공동으로 선별한 미생물을 활용해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토양개량제 ‘회복토 입제(유기농업자재 공시 2-3-661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토양에 잔류중인 살충제와 제초제 등 농약성분을 분해하는 ‘아시네토박터 4-2-2’ 균주가 주요 성분으로, 독자적인 유전자(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균주를 통해 농약성분을 분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복토 입제’를 100평당 5kg씩 살포한 결과 토양에 잔류하는 ‘카네타디프’성분을 비롯하여 잔류농약성분은 1주일 이내에 최대 81% 분해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주)와이앤바이오는 세계김치연구소로부터 ‘함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배추 무름병 원인균 억제용 항균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출시된 제품은 ‘무름엔(유기농업자재 공시 2-4-184호)’으로 스트렙토마이신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무름병 원인균주(PCC)에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함초 추출물에 포함된 페놀릭 엑시드와, 토발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해당 균주에 항균활성 작용하여 병해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추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무처리구의 경우 배추 무름병이 발생했으나, 최대 500배 희석하여 살포한 경우 무름병 방제 효능이 확인되었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주)와이앤바이오는 개발된 유기농업자재 신제품을 통해 농약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응할 수 있으며, 농가들의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영규 대표는 “오래 이어졌기, 연작, 관행농법으로 축적된 농약성분을 분해하여 제거 할 수 있고, 항생제 내성 균주를 천연물로 억제하여 친환경 농업을 이뤄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라면서 “PLS제도에 걱정되는 농가들은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회복토 입제
(공시 2-3-661호)



병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무름엔
(공시 2-4-184호)

(주)와이앤바이오 TEL | 061) 381-5432